

백양로

시민사회, 사회적 권위 그리고 학생의 책임



김현 (장시·박사 3학기)

나라가 인파로 혼란스럽다. 근래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일상적 삶의 토대가 언제라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준다. 중국 한 분유회사와 약질적 행위는 막거리 불안에 빠 속 깊고 다시 한 번 국민사회의,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초래된 외환시장의 페니싱상태는 지난 1997년 IMF 환란의 악몽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자아낸다.

지나거나 또는 그 전경에서 자기를 지켜 줄 보호 장구를 갖는데 열중하고 있는 지 모른다. 하지만 흡스는 개인들이 불안에 빠 지지기 보존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은 자기보존의 권리와 맞서 시민사회, 즉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 사회계약의 명제는 자기 자신만을 향해있는 우리의 눈을 역사로 돌려 그 계약의 현장을 찾게 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우리는 바로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공동체, 즉 사회의 기원과 마주하게 된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라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연 상태에 저항하여 시민사회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제공해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 여름 촛불집회는 우리 시민사회가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해주었고, 정치적 권위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믿었던 영역에서 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해보였다. 그러나 그 시민사회는 여전히 반복되는 한계에 봉착해있다. 그것은 극명하게 노정하였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극적인 흐름이 권위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데 있다. 이는 이번 촛불집회 참가자들 역시 삼척했던 영광만을 안게 되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형성이 자신의 권위를 갖지 못할 때, 정치적 권위를 상실한 후의 상황은 어떠하였다. 취

한다. 시민사회는 결국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들 간의 관계로 전락하고 있다는 미명에서, 사회는 정치로 환원되고 만다. 그렇지만 이 한계는 시민사회의 과제 역시 명확히 부각시켜준다. 정치적 권위가 귀속되지 않는 사회적 권위를 세우는 일에 시민사회의 과제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학생의 잊혀져버린 역할로서 '의식화'가 재발견된다. 학생은 기성 사회 속에 있지만 그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학생은 항상 기성 사회에 대해 타인으로서 등장해 그들로 하여금 권위를 자각하게 할 책임을 지닌다. 즉, 사회적 권위를 의식화할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그 책임이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권리를 지닌 학생들에게 주어졌 소명일 것이다.

사설

정부는 시장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지난 2007년 중순부터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시장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금융시장과 경제가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지난 8월 페니키아 프래퍼 등 미국의 최대 국제 주택담보대출은행들이 파산위기에 몰리다가 9월에는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등 상위 부자은행들이 파산신청을 냈다. 이에 미연방준비은행이 85% 달러를 투입하여 파산위기에 처한 AIG 보행회사를 구제하는 등 거대 금융기관들의 파산 도미노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곧 세계경제의 금융위기로 이어져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상태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급기야 7월의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금융시장의 붕괴 방지를 위해 긴급수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긴급수출 정책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추가적락, 환율급등, 경제침체 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 정권이 아직도 뚜렷한 경제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덮치고 있는 위기의 파도는 시장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현재 가장 절박한 단거리 문제는 차주는 한화은행 인수시키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외환시장에 풀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의의결정이다. 일부에서는 시기를 늦추기 전에 당국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환율을 안정시키도록 시장참여자들에게 인도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기를 늦추면 정경당국이 개입해도 차유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 달러 환율이 1천500원 대가 되면 '퀵 키 아웃 옵션(KIKO)을 구입한 500여 개 중소기업의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정경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지는 점이다. 경제정책에는 다변화 신뢰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경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 많은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면 정부는 약간의 외환을 시장에 푸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수행능력을 의심해 환율은 여전히 오를 것 이라고 예상한다면 정부가 환율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시장에 외환을 쏟아 부어도 환율을 쉽게 낮출 수 없을 것이다.

현 정권이 집권 초기에 시행한 고환율 정책은 원칙도, 심리도 모두 잃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바 있다. 외환정책에 있어서 시장의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현 정권이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환율을 낮출 수 있을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의 금융시장 침체가 얼마나 더 깊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경당국이 외환보유고를 지금 내다 쓰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도 알 수 없다. 지나치게 환율 통제를 몰두하다 자칫 외환보유가 바닥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가위협도가 높아지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비전의 제시와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유사시 정책을 집행할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발언대

무엇을 위한 대학인가

무엇을 위한 대학인가? 무엇이 없게 학교를 위해 다니고 있는 지니세기 학반인 니로서는 요즘 부족 드는 일이다. 학부제로 바뀐 뒤부터는 학부생은 졸업논문은 쓸 필요도 없었고, 취업난을 염두에 두신 것이니 교수님들의 배려 덕분에 좋은 학점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경제제 어려움에 부딪혀 그로발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우들도 요즘은 드문 것 같아 물론 어디나 예외는 있기 마련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점이 해당하는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준비하고 남는 시간에 우리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행보는 마치 지하실 1호실에서 내려서 2층으로 환승하다가 가는 인파처럼 단순화, 획일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국학과 학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학우들이 전공에 매진하고 있는 것인지 취업학(就業學)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지 슘쓸한 의구심이 든다.

물론 학우들을 매도하기 위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크게 들여다보면 자본주의의 본질부터 원형에 이르기까지 들여다보면 학부제 도입부터 잘못 개은 단추일련이 말이다. 하지만 TOEIC, TOEFL, 톱수치가 낮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유명한 외국어 회화 수준에 미달되는 자신을 부끄러워 할 줄은 알면서도, 동시작의 흥행한 고전할 줄은 알면서도, 자신의 자신을 부끄러워 할 줄을 모른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학' 하면 '지성인'을 떠올리는

것이 과연 여전히 의문스럽다. 당혹히 먹고 사는 일처럼 중한 일도 없으니 잘 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얻고 그에게 필요한 스킵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팔리기 위한 스킵(specific)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세계를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영혼의 스킵도 더불어서 쌓기를 바란다는 욕심 어린 당부만이 글을 쓴다.

정경행(국문/투문 99)

Section: 춘추만평. Illustration of a man in a suit holding a glass. Text: '칼럼은 가늠의 길잡이'.

Section: 중.형.무.진. Crossword puzzle grid with clues in Korean.

Section: 에디탈. Article: '부주는 달러로 부락드립니다'. Discusses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impact of the dollar on the domestic market.

Advertisement for Yonsei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ies Graduate School. Title: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입학설명회 (Open House)'. Date: 2008. 10. 29(수) 오후 6시 30분. Location: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01호.